

눌재 박상 연구*

권순열**

<차 례>

- 1. 서언
- 2. 의리의 인물
 - 2.1 애민의식의 구현
 - 2.2 의리 정신의 구현
- 3. 호남시단의 조종
 - 3.1 시업의 확립
 - 3.2 호남시단의 조종
- 4. 결어

1. 서언¹⁾

朴祥(1474, 성종 5~1530, 중종 25)의 자는 昌世, 호는 訥齋, 본관은 忠州이다. 光州 방화동에서 태어났다. 15세가 되던 정월에 부친을 잃었고, 다음해부터는 伯氏인 荷村 朴禎에게 공부를 하였다. 이때 그의 뛰어난 재주

를 발휘하여 학문이 크게 진보하였다.

그는 과거에 합격한 후 환해를 넘나들며 우여곡절을 수없이 겪었다. 때로는 좌절을 겪어야 했고, 때로는 죽음 앞에 서기도 했다. 그 과정 속에서 두 가지 큰 사건을 겪기도 했다. 그리고 외적을 떠돌며 慷慨한 정서를 담은 주옥같은 시문을 지어 문장가로서도 대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하였다. 이러한 그의 삶이 어떤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는가를 네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첫 번째, 박상이 전라도사가 되어 나주 금성관에서 보여주었던 우부리 장살 사건이다. 우부리에 대한 장살 사건은 박상 자신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고, 그 사건이 지니는 의미와 파장도 컸다. 그러므로 우부리에 대한 장살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그 사건에 부수된 고양이의 指路談이 갖는 의미도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 담양부사로 있던 시절 순창군수 김정과 함께 삼인대에서 올렸던 신비복위상소 사건이다. 이 사건은 조야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 속에서 박상이 어떻게 응전하고 좌절했는가를 살펴보고, 신비복위 사건과 삼인대가 갖는 역사적 의미도 추적해 보고자 한다.

세 번째, 박상은 성현, 신광한, 황정욱과 함께 서거정 이후 四大文章家로 꼽혔다. 그의 삶은 시련과 좌절의 연속이었지만 아무리 바쁜 벼슬살이에도 반드시 「離騷經」를 외고, 律詩 1수를 지은 후에라야 잠자리에 들었다고 한다.¹⁾ 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의 詩業을 조명해보자 한다.

네 번째, 박상은 湖南詩壇을 연 先驅者로 많이 알려져 왔다. 1200수가 넘는 시와 12편의 부 등 그 자신이 직접 이룩한 문학적 업적도 훌륭하지만 임억령, 송순 등 후진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호남 시단을 꽃 피운 그의 업적을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 이 논문은 2007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조선대학교

1) 李濟臣, 淸江先生詩話, 「淸江先生鯁鯁瑣語」, 『大東野乘』, 卷之五十七 참조.

이 네 가지 측면에서 박상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박상의 삶에 대한 조명은 조선조 지식인들이 시련에 어떻게 응전했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몸부림쳤는가를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의 문학에 대한 조명은 어두운 시대 닫힌 공간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불사른 위대한 시인의 정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의리의 인물

2.1 애민의식의 구현

박상은 32세가 되던 해인 1505(연산군 11)년에 외직인 全羅道都事로 나갔다. 다음해인 1506(연산군 12)년 8월에 박상의 생애를 특징짓는 가장 획기적인 사건의 하나인 우부리 장살 사건이 발생했다.

연산군이 나주 우부리의 딸을 들여 총애하였다. 우부리는 천인의 자식으로 은혜를 믿고 멋대로 굴어 남의 부녀를 약탈하고 남의 전원을 빼앗아 조야에서 그것을 근심하면서도 그의 죄를 바로잡는 이가 없었다. 병인년 가을에 선생이 전라도사로서 금성관에서 그를 장살하였다.

화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헤아리고, 명령을 기다리려고 서울로 올라갔다. 그런데 어떤 고양이가 큰 길에서 작은 길로 들어가면서 방황하는 것이 길을 가리키는 것 같았다. 선생이 이상하게 여겨 마침내 작은 길로 갔다. 한편 연산군은 우부리가 죽었다는 것을 듣고, 즉시 나포해 오라고 명하였다. 금오랑은 큰 길로 왔으므로 선생과 만나지 못하였다. 마침 중종이 반정하여 화를 면할 수 있게 되었다.²⁾

2) 燕山納羅州牛夫里之女 而嬖之 牛夫里以賤人之子 恃恩恣橫 掠人婦女 奪人田園 朝野患之 無有正其罪者 丙寅秋 先生以全羅都事 杖殺于錦城館 自度不得免禍 待命上京 有猫自大路而入小路 彷徨若指路 先生異之 遂從小路行 燕山聞牛夫里死 卽命掌來 金

이 이야기는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는 우부리의 장살 사건이요, 다른 하나는 고양이의 지로담이다. 전반부의 우부리 장살 사건은 관리로서의 박상의 면모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우부리는 자신의 딸이 임금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점을 믿고 남의 부녀자를 약탈하고 전답을 빼앗는 등 온갖 악행을 자행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지방 관리들은 우부리를 제어할 어떤 방도가 없었다. 우부리는 임금의 비호를 믿고 못할 것이 없는 자인지라 지방 수령의 통제 범위를 이미 벗어나 있었다. 그러므로 나주 목사 등 어떤 관리도 우부리를 체포하거나 형벌을 가하지 못했다. 그런데 박상이 우부리를 체포해 죽음에 이르도록 곤장을 친 것이다. 이 우부리 장살 사건은 박상의 면모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의미 외에도 몇 가지 시사하는 점이 있다.

눈여겨 볼 것은 박상의 단호한 성격이다. 박상은 망설이거나 타협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다른 측면에서 볼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우부리가 범죄인이고 지탄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법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하고, 그 죄에 상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곤장을 쳐 죽였다는 것은 법의 정당한 집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교화라든가 지도 등 목민관으로서 취해야 할 자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무엇인가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보다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修己治人の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보다 성숙한 목민관의 자세가 아쉬운 대목이기도 하다. 그리고 국가 통치의 차원에서 보면 논죄를 받아야 할 부분도 있다. 그런데 장살 사건 후 박상이 추국이나 다른 불이익을 받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 이것으로 보아 이 사건에 대한 박상의 형사적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후 장살 사건은 정당화되고, 더 나아가 미화되어 있다. 이것은 당시 무력화된 공권력을 박상이 세웠기

吾郎從大路 與之相違 會中廟反正 得免慘禍. (『訥齋集』附錄 卷第二)

때문이다. 이 사건이 인구에 회자되고 미화된 것은 단순히 우부리라고 하는 한 범죄인을 징벌한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당시까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법이 있어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는 민중들의 한을 박상이 풀어 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주 지방 백성들의 고통과 억울함은 우부리의 만행뿐만 아니었을 것이다. 당시 민초들의 고통과 억울함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부리 장살 사건은 민초들의 한을 풀어준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부리의 딸에 대한 구체적 기록은 없는 것 같다. 우부리의 딸이 궁중에 언제, 어떻게 들어갔으며, 연산군과 어떤 관계였는가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다만 당시 상황을 보면 연산군은 1505(연산 11)년 6월 16일 採紅駿使로 李季수를 전라도에, 任崇載를 충청도·경상도에 파견했다.³⁾ 그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여자와 좋은 말을 간택해 오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법령이 가혹하여 조금만 늦추면 비록 수령이라도 곤장을 때렸다. 그래서 두려워 처첩이라도 감히 숨길 수가 없었다. 전라도 採紅駿使로 나간 이계동은 약 2개월 후인 8월 10일 미녀 63인과 말 150필을 선발하여 왕에게 바쳤다. 그러자 왕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이계동을 내전으로 불러 들여 술을 권하고, 특별히 노비 10명을 하사하였다.⁴⁾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우부리의 딸은 이계동에 의해 선발된 63명 중의 한 명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때 선발된 미희와 주위 세력들 중에는 연산군의 총애를 업고 위세를 부린 경우도 더러 있었다. 우부리도 그들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무튼 우부리 장살 사건으로 박상은 참으로 어려운 곤경에 처하게 된다. 그가 공권력을 정당하게 집행했느냐 아니 했느냐의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연산군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 앞에 설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연산군은 온갖 패륜을 자행하고 이성적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박상에 대한 조치는 매우 감정적이고 보복적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달리 어떤 구명의 방법도 없었다. 그래서 박상은 하는 수 없이 연산군의 처분을 받기 위해 상경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이 상경 과정에 박상을 구해준 고양이의 전설이 삽입되어 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의도적인 설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매우 특이하고 흥미로운 요소가 있다. 우선 길의 안내자로 고양이가 등장하고 있는 점이다. 대개의 경우 善人의 어려움을 타개해 주는 안내자로 등장하는 것은 도사나 호랑이다. 그런데 박상의 경우에는 고양이가 그 역할을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선생이 정읍을 십 리쯤 지나 고개 하나를 만났는데 고양이가 나타나 큰 길에서 작은 길로 들어가 방황하는 것이 길을 가리키는 것 같았다. 선생이 이상하게 여겨 마침내 작은 길로 해서 갔다. 중종이 반정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대로 고양이를 따라서 금강산의 절까지 갔다. 중들이 놀란 듯이 기뻐하며 말하길, “절의 고양이가 보이지 않은 지 여러 날이 되었는데 지금 행차를 인도해 왔구나.”라며, 조용한 방으로 맞아들어 머물러 있게 하였다. 그 후에 광주 오산에 있는 약간의 전장을 절에 주어 고양이의 먹이 비용에 쓰게 하였다. 그 고장 사람들은 그 고개를 모망이라고 불렀다.⁵⁾

고양이의 지로담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전설이다. 고양이에 대한 인식에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 그리고 고양이가 상징하는 것도 다양하다. 금강산까지 박상의 길을 안내했다는 점에서 본다면 호랑이의 축소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뒤에 鰲山에 正陽寺의 경작지가 있고, 금강산 절의 중이 해마다 와서 추수를 해 갔다고 부기되어 있다.⁶⁾ 그렇다면 고양이는 스님으로 보아야 한다. 고양이의 ‘猫’는 70살

3) 『燕山君日記』, 卷五十八, 11년 6월 16일(己巳) 참조.

4) 『燕山君日記』, 卷五十九, 11년 8월 10일(壬戌) 참조.

5) 先生行過井邑十里許 當一峴 有猫自大路而入小路 彷徨若指路 先生異之 遂從小路行 聞中廟反正 因隨猫至金剛山寺 僧徒驚喜曰 寺之猫不見有日 今乃導行次來矣 延入靜室 止留 其後 以光州鰲山略干田庄 付寺中爲猫食資 土人名其峴爲猫望. (『訥齋集』附錄 卷第四 年譜)

을 의미하는 ‘糶’와 ‘mao’라고 음이 같아 흔히 장수를 상징하기도 한다. 그리고 유교에서는 고양이를 충과 의를 아는 동물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전설에 등장하는 고양이는 충과 의를 알고 있는 늙은 스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금강산의 스님이 오산에 와서 해마다 경작을 해 간다는 사실이 그것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금강산의 절 이름은 정양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사찰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이 설화의 현실성을 보다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 정양사는 박상 가문의 願刹일 가능성이 높다. 고양이의 지로담은 天道가 있어 동물까지 佛力을 입고 義 실천에 報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7) 결국 이러한 이야기는 박상의 우부리 장살 사건을 정당화하고 미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불교를 끌어들이는 것은 우부리에 대한 장살 사건에 대해 박상이 그만큼 정신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고뇌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2.2 의리정신의 구현

박상은 성품이 간결하고 강직하여 인정하는 사람이 적었다.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강해 정적들이 많았다. 이 때문에 내직에 오래 있지 못하고, 여러 번 내침을 당했으나 고치지 않았다. 그래서 조정에서 그의 경륜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사에 봉사하여 진심을 다하고, 게을리 하지 않았다. 사간원에 있었던 것은 1년이었고, 경연에서 시강했던 것은 반년이였다. 그 기간 동안 자신의 포부를 펼치고, 자신이 배운 바를 행할 수 없었다. 8) 주위 사람들과의 갈등을 겪고 있을

6) 光州結冊 鰲山有正陽寺所耕 而金剛寺僧 年年來收稅云. (『訥齋集』附錄 卷第四 年譜)

7) 박준규, 「訥齋 朴祥論」, 『古詩歌研究』第1輯, 177쪽.

때 어머니가 연로하고 병이 깊어 봉양하기에 편리하도록 근교 외직을 자청해 1512(중종 7)년 가을에 담양부사로 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1515(중종 10)년 여름철에 우박이 내리고, 전라도 낙안에서 밭 다섯 개 달린 송아지가 생겨나는 등 災異가 잇달아 일어났다. 그래서 중종은 6월 12일(丁卯)에 직언을 구하는 전교를 내렸다. 그러자 8월 8일(壬戌) 담양부사 박상과 순창군수 김정, 무안현감 유옥이 순창 강천사에서 함께 廢妃 愼氏의 복위를 요청하는 상소, 「請復故妃愼氏疏」를 작성하여 올리기로 했다.

삼인대란 무엇인가? 옛날 충암 김정 선생은 본 군의 군수를 맡았고, 놀재 박상 선생은 담양 부사를 맡았고, 석현 유옥 선생은 무안 현감을 맡았다. 이 대에서 모여 상소하는 일을 의논하였다. 세 분은 각자 인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대의 이름을 삼은 것이다. 9)

三印臺란 폐비 신씨의 복위를 요청하는 상소를 초안한 장소를 말한다. 담양부사 박상, 순창군수 김정, 무안현감 유옥 이 세 사람이 印綬를 소나무에 걸어놓고 상소문을 작성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들이 인수를 소나무에 걸어놓은 것은 충의를 위해 죽음을 각오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삼인대는 節義를 상징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세 사람 중 무안현감인 석현 유옥의 이름이 상소문에 빠져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다른 두 사람과 달리 유옥만은 연로한 부모를 봉양할 형제가 없었다. 때문에 만약 유옥이 죽게 된다면 孝를 해치게 될 상황이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유옥에게 빠지도록 권유한 것이다. 그리고 상소문의 초안은 충암 김정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 求言하는 중종

8) 尹衢, 「行狀」, 『訥齋集』, 附錄 卷第一, 참조.

9) 三印者何. 在昔沖菴金先生淨. 守本郡. 訥齋朴先生祥. 爲潭陽府. 石軒柳先生沃. 爲務安縣. 會於是臺. 而議疏事. 三賢各有印. 故以是名焉. (李緯, 「三印臺碑銘 并序」, 『訥齋集』, 附錄 卷第二)

의 교지를 받고 강천사에 모여 자면서 폐비 신씨의 복위를 청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각자 초고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에 다시 모였는데, 김정 초고를 본 박상은 자신의 초고를 접어버렸다. 그리므로 ‘청복고비신씨소’는 김정이 초고를 작성하고 박상이 수정하여 확정한 것이다.¹⁰⁾

박상이라는 인물을 특징짓는 가장 큰 사건은 아무래도 이 신비복위상소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의 정치 여정에 있어서 신비복위상소만큼 그의 주위를 맴도는 사건은 없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상소 사건으로 조야가 들끓고, 박상 자신도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마침내 1515(중종 10)년 8월 11일(乙丑) 대사헌 권민수, 대사간 이행 등이 담양부사 박상과 순창군수 김정이 상소하여 감히 사특한 의론을 발하였으니, 지극히 놀랍습니다. 청컨대 잡아다 의금부에 내려 그 까닭을 추고하라고 하였다. 그에 대해서 중종은 朴元宗, 柳順丁, 成希顔이 이미 죽은 뒤를 틈타서 발론하였으니, 그 심술을 알 만하다며 주문하라고 하였다.¹¹⁾ 이에 대해 유순과 정광필 등이 구언으로 인한 것이니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고 아뢰었다. 하지만 1515(중종 10)년 8월 23일(丁丑)에 의금부에서 박상과 김정의 죄를 杖 100, 徒 3년에 고신을 추탈할 것을 아뢰자, 장형은 贖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음날인 4일(戊寅)에 박상을 남평에, 김정을 보은에 徒配하였다. 그 후 두 사람에 대한 몇 차례의 방면 요청으로 마침내 1516(중종 11)년 11월 13일(庚寅)에 서용토록 하라는 명이 내렸다. 그래서 박상은 12월에 의빈부도사에 제수되었다가 장악원첨정을 거쳐 1517(중종 12)년 3월 순천부사에 제수되었다. 그리고 김정은 부제학에 제수되었다. 이렇게 해서 대략 15개월만에 신비복위상소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신비복위상소 사건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주요한 것은 신비복위 문제와 시국의 괴변과의 관련성이다. 시국

의 괴변에 대한 구언에 신비의 복위 문제를 거론한 것은 아무래도 적절한 대응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신비복위상소에 나름대로의 논리를 제시하고 있지만 시국의 변괴와는 거리가 멀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국의 변괴는 예전에도 더러 있었고, 어떤 미봉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박상이 이 신비복위 문제를 제기한 것은 다른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신비의 폐위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처사였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거론해 공론화하거나 해결하려는 사람이 없었다. 그 이유는 물론 반정공신들의 위세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신비복위 문제는 박상이 당시 백성들의 여망을 대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상소의 내용을 살펴보면 반정공신인 유종원, 성희안, 유순정 등의 잘못을 적시하여 중종의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중종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적절하게 이용할 가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중종은 상소를 이용해 왕권을 강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박해를 가한 것이다. 하지만 결국 상소는 사특한 의론에서 萬世의 正論으로 인정을 받고, 폐비 신씨는 영조 때에 端敬王后로 복위되었다.

박상은 평생 의리를 존중하고 실천하였다. 그런데 박상은 기묘사화의 소용돌이에서는 함몰되지 않았다. 조광조 등 사림 세력이 엄청난 피해를 당했는데도 박상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모부인인 서씨의 상과 관련이 있다. 박상은 1517(중종 12)년 10월에 모부인인 서씨의 상을 당했다. 그래서 3년 동안 광주에서 시묘살이를 하고 있어 조정의 정사와는 거리가 있었다. 조광조와 훈구대신들이 격렬한 정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 박상은 한발 비껴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無等山前曾把手러니 무등산 앞에서 일찍이 손을 잡았었는데
牛車草草故鄉歸라 달구지로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가네.

10) 安瑤, 朴祥傳, 『己卯錄補遺 卷上, 『大東野乘』, 卷之十 참조.

11) 『中宗實錄』, 卷二十二, 10년 8월 11일(乙丑) 참조.

他年地下相逢處 앞으로 저승에서 만나게 되면
 莫說人間謾是非하라 인간 세상의 부질없는 시비는 말하지 마세.
 ‘逢孝直喪’¹²⁾

이 작품명이 『訥齋集』에는 ‘趙孝直光祖喪車自竹樹歸故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글자도 약간의 異同을 보이고 있다. 起句는 정암이 전라도 능주로 유배간다는 소식을 듣고 광주 남문 밖에 있는 분수원까지 찾아가 전송할 때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勝句는 정암이 사약을 마시고 운명한 뒤 소달구지에 실려 용인으로 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起句에서 시상을 열면서 조선의 지명을 구사하는 것은 海東江西詩派의 작품에서 공히 발견되는 以俗爲雅의 실천 양상이다. 특히 시상을 여는 부분에서 구사된 고유명사는 독자들에게 돌발적으로 장면을 제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기발한 느낌을 갖도록 한다.¹³⁾ 며칠 사이에 벌어진 두 상황의 대비가 강렬한 비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轉句와 結句에서 이 세상의 시비를 말하지 말자고 한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비원이 담겨 있다. 이렇게 박상이 기묘사화에 대해 알았을 때는 훈구대신들에 의해 조광조를 비롯한 사람의 중심 세력이 뿌리까지 뽑힌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기묘사화의 경우 박상이 사림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었다. 겨우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시로 앞서간 녀을 위로하고 상소문을 올려 자신의 심중을 호소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상소문의 경우는 동도지인들을 구하는 데 도움은 되지 않고, 다만 화만 심하게 할 뿐이라는 주위의 만류로 뜻을 접게 된다.

그리고 至治를 실현하고자 하는 박상과 조광조의 정치적 노선은 같았지만 좀 더 세부적인 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광조를

12) 許筠, 『國朝詩刪』, 卷二, 七言絕句, 朴祥.
 13) 이종목, 『海東江西詩派研究』, 太學社, 1995, 257쪽.

비롯한 사람의 세력들은 임금을 깨우치기 위해 노력하다 지나친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과격하기까지 했다. 그러므로 己卯의 受難은 士林派 官僚들의 현실을 뛰어넘는 지나친 졸속과 과격함에 어느 정도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다.¹⁴⁾ 그러나 박상의 경우는 신권을 중시하면서도 왕권을 확립하고자 하는 면이 강했다. 이런 면에서 조광조와 약간의 노선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박상은 주로 외직에 있었기 때문에 종종과 직접적인 마찰이 비교적 적었다. 그렇다고 해서 훈구파의 질서와 박해를 피할 수는 없었다. 기묘사화로 사람이 거의 말살된 상황에서 보여준 박상의 처신은 그의 의리정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박눌재는 호방하고 큰 뜻이 있었다. 기묘년에 충주목사로 있었다. 조정 암이 북문의 화를 당하자 당시의 선비들이 의지할 곳이 없었는데, 공이 모두 돌보아 주었다. 성동 김세필, 음애 이자, 탄수 이연경 같은 사람들이 함께 가서 의지하였다.

공이 하루는 여강에 왔다가 김모재와 신기재가 어렵게 생활하는 것을 보고는, 여주목사 안분당 이희보를 찾아가서 쌀 백 섬을 빌려 두 사람을 구제하였다. 충주로 돌아와서는 서둘러 쌀을 배에다 실어서 빌려온 수량대로 안분당에게 갚았다. 선배들은 친구들 사이에 대개 이리하였다.¹⁵⁾

박상이 기묘년인 1519(중종 14)년에 충주목사로 있었다는 것은 기록의 착오로 보인다. 왜냐하면 박상이 1519(중종 14)년에는 상중인지라 광주에 있었고, 1521(중종 16)년 봄에 상주목사로 있다가 여름에 충주목사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이다. 아무튼 박상은 자신의 처지를 돌보지 않고 同道之人

14) 권순열, 『學圃 梁彭孫의 義理精神과 文學世界』, 『古詩歌研究』 第8輯, 16쪽.
 15) 朴訥齋 個儻有大志 己卯歲 方爲忠州牧 靜庵罹北門之禍 一時人類 無所歸 公悉爲經紀 故金省洞世弼 李陰崖 李灘叟 延慶 俱往依之 公一日來呂江 見金慕齋申企齋 窮居 見主牧安分李希輔公 乞米百斛 貸而調兩公 還州 亟以船輸米 依數償安分公 前輩於朋友 盖如是也。(許筠, 『惺所覆瓿藁』 卷二十三, 說部 二, 惺翁識小錄 中)

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돌보아 주었다. 그렇지 않아도 당시 질시를 받고 있는 처지에 기묘사림들을 물질적으로 돕는다는 것은 파직 등 공인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이렇게 박상은 동도지인들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의리를 다했다. 만질을 보면 초지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박상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千仞三印臺에	천 길의 삼인대에서
草疏大義數라	상소하여 대의를 펼쳤네.
疾惡剛腸腸에	악을 미워해 의분을 품었을 때에
袞貞混紫朱라	남곤과 심정이 정도를 혼란시켰네.
題詩逍遙亭하여	소요정에서 시를 써서
譏諷付心誅라	비방과 조롱을 죽을 마음에 부쳤네.
半山排案俎요	산허리에 상을 차렸고
秋壑闢樽盂라하니	가을 산에 술잔을 열었다 했지만
生平訥言眞丈夫라	평생 말수 적은 참다운 대장부였네.

‘訥齋歌’¹⁶⁾

이 시가 박상에 대한 정확한 평가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박상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나름대로 전한 시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 기록과 세간의 평가를 토대로 지었기 때문이다. 1연은 담양부사 박상과 순창군수 김정, 그리고 무안 현감 유옥이 순창 강천사 삼인대에서 각자의 인끈을 소나무에 걸어놓고 신비복위상소를 올린 것을 말한다. 2연은 남곤과 심정이 홍경주와 함께 기묘사화를 일으켜 조광조 일파를 제거하고, 정권을 농락한 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들은 후세 사람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袞貞’으로 일컬어지며 소인의 대표적 인물로 길이 매도되었다. 3연은 박상이 심정의 정자인 逍遙堂에 초대받아 심정을 조롱한 사건을 말한다. 그리고 4연은 박상이 소요당에 썼던 구절과 박상에 대한 총평이다. 심정이 陽川에 소요당을 짓

16) 金壽民, 『箕東樂府』, 卷之四, 訥齋歌.

고, 두루 당대의 글 잘하는 이에게 청하여 현판을 쓰는데, 朴祥의 시에 ‘半山排案俎, 秋壑闢樽盂’라는 글귀가 있으므로, 자기를 기롱하고 풍자한 뜻으로 알고, 떼어서 불태워 버렸다.¹⁷⁾ ‘半山’은 宋나라 王安石의 호이고, ‘秋壑’은 宋나라 賈似道의 호이다. 둘 다 宋나라 정치를 어지럽힌 亂臣들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왕안석이 상을 차리고, 가사도가 술자리를 마련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박상은 놀라운 착상으로 심정과 남곤을 기롱하고 풍자한 것이다. 그리고 박상이 당시에 썼던 시는 排律 40韻의 ‘題逍遙堂’이라는 시였다. 본문의 ‘閣’이 『訥齋集』에는 ‘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조금 다르다.¹⁸⁾ 그리고 총평으로 의리를 지킨 박상을 기려 ‘참다운 대장부’라 칭송하고 있다.

3. 湖南詩壇의 祖宗

3.1 詩業의 確立

시를 자신의 주업으로 여기기 시작한 것은 조선 중기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고려 중기의 서하 임춘이나 오세재, 말기의 졸옹 최해 같은 경우도 시에 대해 치열한 의식을 지녔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시를 업으로 여기고 살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환로에 진출하기 위해 몸부림치다 뜻을 얻지 못해 자신의 울분을 시로 풀어낸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조선조에 들어와 시 속에서 생활한 사가 서거정의 경우도 시업에 종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거정의 경우도 환로에 대한 집념이 보다 강하고 시업에 대한 의식은 약하기 때문이다.

17) 李肯翊, 『燃藜室記述』, 卷之九, 中宗朝故事本末, 中宗朝相臣, 沈貞 참조.

18) 朴祥, 『訥齋集』, 續集 卷第二, 詩, ‘題逍遙堂’ 참조.

박상은 28세에 校書館 正字로부터 시작하여 56세 나주목사를 그만둘 때까지 환해를 넘나들었다. 내직에서 자신의 경륜을 펼친 기회도 있었지만 거의 외직을 전전했다. 그의 강직한 성품 때문에 정적들과의 심한 갈등을 빚어야 했고, 내직에 오래 있지 못하였다. 결국 외직을 전전하며 그곳의 경물에 자신의 비분강개를 담아냈다. 그러한 그의 시에 대해 이미 당대 최고의 시인들이 인정하고 있었다. 호음 정사룡은 감복하여 높이 받드는 경우가 적었는데, 다만 박상의 시를 좋아했다. 일찍이 벽 위에, 西北二江流太古(서북의 두 강물은 태고적부터 흘러오고), 東南雙嶺鑿新羅(동남의 두 봉우리는 신라를 파고드네)라는 것과 彈琴人去鶴邊月(가야금을 타던 사람은 학 옆의 달 속으로 가버리고), 吹笛客來松下風(피리를 불던 나그네는 소나무 아래 바람 속에 오네)라는 詩句를 써놓고 스스로 탄식하며 자기는 따라갈 수 없다고 여겼다.¹⁹⁾ 박상에 대한 존숭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나는 젊은 날 지천 응을 뵈게 되었는데, 그 지론이 몹시 거만하여 고금의 문예를 이야기할 때는 인정하는 바가 적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에 이르러서는 더욱 열에 넣어 논란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용재 같은 이를 너무 기름지다 지적하고 이달은 모의했다 지적하니, 그 아래는 알 만하였다. 오직 눌재 박상만은 존봉하여 미칠 수 없다고 하였고, 호음과 소재는 조금 작가에 합한다 하였다. 나는 듣고 마음으로 놀랐으며, 드넓어 하한을 엿본 듯하여 깊이와 가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²⁰⁾

지천 황정욱이 박상을 높이 평가한 것은 서로 비슷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

19) 鄭湖陰士龍 少推伏 只喜訥齋詩 嘗書西北二江流太古 東南雙嶺鑿新羅 及彈琴人去鶴邊月 吹笛客來松下風之句於壁上 自嘆以爲不可及. (許筠, 『惺叟詩話』, 『惺所覆瓿』 卷二十五, 說部 四)
 20) 蓋余少日 及見芝川翁 其持論甚倨 談古今文藝 少所許 而至我國詩 則尤不齒論 如容齋而目爲太腴 李達而指爲模擬 其下槩可知矣 唯推朴訥齋詩爲不可及 而湖陰蘇齋 稍含作家 余聞而心駭 浩如喻河漢 不可測其深涯也. (許筠, 『題黃芝川詩卷序』, 『惺所覆瓿』, 卷五, 文部 二序)

다. 같은 해동강서시파로서 시세계가 비슷했고, 자신의 경륜을 펼 수 없는 처지로 慷慨한 詩情을 담아낸 점도 그러하다. 그리고 황정욱은 해동시파의 마지막 세대로서 그가 존숭했던 인물도 박상이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혹평하면서도 박상에 대해서는 자신이 미칠 수 없다고 겸손해한 것이다. 당시 대단히 존숭을 받았던 박상은 외직에 나가 있을 때 공무에 열성을 다하면서도 시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박상은 공무 속에서도 시업을 즐기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바쁜 벼슬살이에도 반드시 離騷經를 외고, 律詩 1수를 지은 후에라야 잠자리에 들었다는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박상의 삶은 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시경』이나 『초사』, 이백과 두보의 시에 이해가 깊지 않다면 박상의 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²¹⁾ 이것은 박상이 중국의 전통 시가와 성당 시에 연결되어 있다는 말일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의례적인 청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박상의 시세계를 엿볼 수 있는 열쇠일 수도 있다. 박상은 특히 외직에 나가 있을 때 그곳의 경물을 읊은 시들을 많이 남겼다.

湛湛長江上有楓	하고	깊고 깊은 긴 강가에는 단풍나무가 있고
仙臺孤截白雲叢	이라	신선대는 외로이 높은데 흰 구름 모여 있네.
彈琴人去鶴前月	이오	가야금을 타던 사람은 학 옆의 달 속으로 가버리고
携笛客來松下風	이라	피리를 불던 나그네는 소나무 아래 바람 속에 오네.
萬事一廻悲逝水	오	만사가 한번 지나니 가는 물이 슬프고
浮生三嘆撫飛蓬	이라	덧없는 인생 되풀이 탄식하며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지네.
誰能畫出湖州牧	의	누가 능히 충주목사의
散步狂吟夕照中	고	양 속에 거닐면서 미친 듯이 읊조림을 그려낼까?

彈琴臺²²⁾

21) 朴祐, 『訥齋集序』, 『訥齋集』 참조.
 22) 朴祥, 『訥齋集』, 卷第五, 律詩 七言.

박상은 1521(중종 16)년 봄에 상주목사로 나갔다가 여름에 충주목사로 옮겼다. 내직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처지였다. 동도지인들은 불귀의 객이 된 지 오래고 주위를 감도는 것은 견제와 질시뿐이었다. 박상은 외롭고 위태로운 속에서도 어느 누구와 마음을 함께 할 수 없는 처지였다. 그래서 늘 외적을 떠돌았다. 그렇다고 해서 여유나 안식을 누릴 수도 없었다. 산적한 직무 속에서 밀려드는 것은 회한과 좌절, 그리고 안타까움이었다. 이 '彈琴臺'는 경물을 통해 박상의 안타까운 심정을 가장 잘 드러낸 작품의 하나이다. 수련은 탄금대의 경물을 통해 외적으로 떠돌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 비록 외적을 원해 충주목사로 와 있지만 사실은 좌천이나 다름없었다. 『楚辭』를 원용해 임금에게 버림받은 송옥의 처지에 자신을 비유한 것이다. 함련은 옛날 가야금을 타던 우륵은 신선이 되어 가버리고 오늘은 바람 속에 피리를 부는 자신을 대비시켜 처량한 느낌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경련은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하고 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평범한 언어이지만 박상의 처지와 연관되어 그 비감이 상승하고 있다. 尾聯은 안타까운 호소이며 외침이다. 박상은 훈구파와의 갈등 속에서도 동도지인들에 대한 자신의 도리를 다했다. 하지만 그에게 밀려드는 고통은 가중되기만 했다. 특히 아들 敏中의 거듭되는 낙방은 그 원인이 박상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러한 고통을 담아낸 박상 시의 아름다움은 강개한 정감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감을 보여주고 있다.

樹雲幽境報南訛하니 나무와 구름 그윽한 곳에 여름 소식 전해져서
 休說東風捲物華하라 봄바람이 좋은 경치 걷어갔다 말게나.
 紅綻綠荷千萬柄하니 푸른 연 천만 그루에 붉은 꽃 터지니
 却疑天雨寶蓮花라 문득 하늘에서 보련화 뿌린 줄 의심했네.

‘夏帖’²³⁾

23) 許筠, 『國朝詩刪』, 卷二, 七言絕句, 朴祥.

이 작품이 『訥齋集』에는 ‘題叔保令公四時圖小屏’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國朝詩刪』의 제목을 따온 것은 이 시가 ‘夏帖’이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윤호의 四時圖에 쓴 제화시로, 박상의 대표작 중의 하나이다. 네 계절 중 여름의 풍경에 쓴 것이다. 특히 이 시는 轉句에서 보여주는 색채의 대비가 비 온 뒤의 정경처럼 싱그럽다. 그리고 結句에서 보여주는 착상은 박상의 시적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연못에 피어 오른 수많은 붉은 연꽃을 하늘에서 보련화 꽃비를 내린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마치 부처가 영취산에서 설법할 때 꽃비가 뿌려지는 神異한 광경을 통해 기발한 미감을 연출하고 있다.²⁴⁾

우리나라 시는 권필, 이안눌, 박은, 최립 등을 많이 꼽고 있다. 하지만 최립은 문기가 지나치고, 박은은 왕왕 매우 높게 드러난 곳도 있지만 또한 결점이 있다. 그리고 이안눌은 반이 수창한 것이고, 권필은 지나치게 연약하고 아름답다. 오직 박상은 이러한 여러 장점을 겸하고 있어 최고라 할 것이다.²⁵⁾

정조는 박상을 비교적 다양한 측면에서 보고 있다. 사실 박상뿐 아니라 다른 시인들의 경우에도 한 마디로 그의 시세계를 표현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정조는 박상이 권필, 이안눌, 박은, 최립 등의 여러 장점을 겸하고 있어 최고라고 평가하고 있다. 박상에 대한 극찬이며, 가장 정확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박상은 외적을 전전하며 느낀 강개한 정을 다양한 미감으로 표출하였다. 박상은 비록 환로에 나아가 자신의 경륜을 다 펴지는 못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내직과 외직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수기치인의 기회를 가졌

24) 강석중 외, 『조선시대의 한시2』, 문헌과해석사, 1999, 336쪽 참조.

25) 我東詩律多數石洲東岳挹翠簡易 而簡易文勝 挹翠往往甚高著 然亦有些欠處 東岳半是 酬唱調 石洲太軟媚 獨朴訥齋兼有諸能 當爲第一耳. (『弘齋全書』, 『日得錄』, 卷百六十二)

다. 그리고 공무의 여가에 시를 통해 걱정을 토로하고 詩業의 세계를 어느 정도 완성했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박상의 삶은 환로와 시업이 가장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3.2 호남시단의 조종

호남 시단은 조선 중기에 접어들면서 화려한 꽃을 피웠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그렇게 뚜렷한 족적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어떻게 아주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은 위대한 시인들이 호남에서 배출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깊이 있는 연구가 없었다. 다만 몇 가지 이유를 추정해 볼 뿐이다. 호남은 예전부터 물산이 풍부해 경제적으로 비교적 여유 있는 생활을 누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학문과 문학과 예술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문학과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호남의 도처에 건축된 누정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누정에서는 문학과 예술을 향유하면서 서로 시를 수창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때로는 수창을 통해서 시적 능력을 경쟁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시인들이 타인의 장점을 배우고, 시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호남에서는 위대한 시인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근래에 시인이 호남에서 많이 배출되었다. 눌재 박상, 석천 임억령, 금호 임형수, 하서 김인후, 송천 양응정, 사암 박순, 고죽 최경창, 옥봉 백광훈, 백호 임제, 태헌 고경명 같은 이는 모두 뚜렷이 돋보이는 자들이다.²⁶⁾

26) 頃世詩人多出於湖南 如朴訥齋祥 林石川億齡 林錦湖亨秀 金河西麟厚 梁松川應鼎 朴思菴淳 崔孤竹慶昌 白玉峯光勳 林白湖梯 高苔軒敬命 皆表表者也. (李晬光, 『芝峰類說』, 卷十四, 文章部 7, 詩藝)

이들은 호남에서 배출된 10명의 위대한 시인들이다. 대부분 비교적 많이 알려진 시인들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들이 이룩한 문학적 높이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저 피상적 언급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호남에는 이들 외에도 뛰어난 시인들이 많다. 이렇게 호남의 문풍을 조선 최고 수준으로 선도한 대표적 시인이 박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박상을 통해서 江南의 詞宗이라고 할 수 있는 석천 임억령과 면양정 시단의 주인인 면양 송순 등이 배출되었기 때문이다.

박상이 임억령을 만난 것은 1509(중종 4)년이었다. 임억령은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모부인 음성 박씨의 명으로 박상과 六峯 朴祐의 문하에서 공부를 하였다. 박상이 일찍이 임억령에게 『장자』를 가르치며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문장가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²⁷⁾ 임억령은 박상에게서 전수받은 문학적 토대를 발판으로 스승과는 다른 자신의 문학 세계를 구축하였다. 박상의 시는 흔히 강개하다거나, 험박하고 奇健하다고 한다.²⁸⁾ 그러나 석천의 경우는 스승인 박상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석천 임억령은 江南의 詞宗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시단을 주도했고, 栗谷 李珣가 “평생 무릎을 꿇지 않았는데, 오늘에야 公에게 꿇는다.”²⁹⁾고 말할 정도로 수준 높은 시와 문을 많이 남겼다. 그리고 풍류를 즐겨 여러 문인들과 교유하면서 많은 시를 남겼다. 특히 松川 梁應鼎과 棠城, 현재의 해남에서 주고받은 棠城酬唱詩는 수창이 지니는 친교의 의미를 넘어 詩戰의 樣相을 띠고 있다. 이런 詩戰은 한국문학사상 유례가 없는 사건으로 창작 과정의 공격성과 격렬함을 보여주기도 했다.³⁰⁾

박상이 면양 송순을 만난 것은 1513(중종 8)년이었던 것 같다. 모부인이

27) 訥齋嘗授石川莊子曰 爾必爲文章. (朴東亮, 歷朝舊聞三, 中宗, 『寄齋雜記三』, 『大東野乘』, 卷之五十一)

28) 申欽, 『晴窓軟談』, 『象村稿』, 卷之五十二 漫稿 下 참조.

29) 生平不屈膝 今日爲公屈. (李珣, 『栗谷全書』, 卷之一, 次林石川億齡韻)

30) 권순열, 『松川 梁應鼎의 詩文學 研究』, 월인, 2002, 77쪽 참조.

더욱 연로하자 돌아가 봉양하기를 요청하였다. 그래서 1512(중종 7)년 가을 고향 근처인 담양부사에 제수되었다. 박상이 담양에 부임한 이듬해인 1513(중종 8)년에 면양 송순과 棗溪 鄭萬鍾 등이 박상에게 나아가 사사를 했다. 특히 송순은 훗날 면양정 시단의 주인으로 호남시단을 풍요롭게 한 중심인물 중의 한 사람이다. 송순은 평생 조금이라도 방향을 안 것은 전적으로 스승 박상이 인도해 주신 덕에 힘입었다고 말하고 있다.³¹⁾

이렇게 박상은 후진들의 교육을 통해서 호남시단과 조선 중기 목릉성세를 주도한 시인들을 배출하였다. 그가 이룩한 시업은 임억령으로 이어지고, 임억령은 백광훈에게 전해 호남시단은 조선의 문풍을 주도하였다. 그래서 박상을 호남시단의 조종이라고 하는 것이다.³²⁾

4. 결어

눌재 박상은 조선 중기 시인으로 많은 문학적 업적을 남겼다. 그래서 성현, 신광한, 황정욱과 함께 서거정 이후 四大文章家로 일컫는다. 그리고 그는 동도지인들에게 마지막까지 도리를 다한 의리의 인물이었다. 그의 삶과 문학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박상은 1506년 나주 금성관에서 우부리를 장살하였다. 우부리는 임금의 사랑을 받고 있는 딸을 밍고 남의 여자를 약탈하고 재산을 빼앗는 등 온갖 악행을 행하였다. 그러나 지방 관리들은 우부리를 억제할 어떤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박상이 우부리를 체포해 곤장을 쳐서 죽게 하였다. 그 후 이 사건은 정당화되고, 더 나아가 미화되었다. 이 사건의 이야기 속에는 박상

31) 黃胤錫, 『企村先生宋公家狀』, 『俛仰集』, 卷之五, 「附錄」 참조.

32) 박준규, 『訥齋 朴祥의 詩文學論攷』, 『訥齋 朴祥의 文學과 義理 精神』, 光州直轄市, 1993, 179쪽 참조.

을 구해준 고양이의 지로담이 삽입되어 있다. 이 전설은 의도적인 설정으로, 우부리를 장살한 사건을 정당화하고 미화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박상은 1515년 순창군수 김정, 무안현감 유옥과 함께 순창 강천사 삼인대에서 '請復故妃愼氏疏'를 작성하여 올렸다. 그 장소를 三印臺라고 한 것은 세 사람이 印綬를 소나무에 걸어놓고 상소문을 작성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충의를 위해 죽음을 각오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삼인대는 節義를 상징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의미는 훈구파의 위세에도 굴하지 않고 정의를 밝힌 점이다. 이 사건으로 해서 사림파는 훈구파와의 싸움에서 보다 유리한 명분을 선점하였다. 박상은 시묘살이 중에 있어 기묘사화에 희생되지 않았다. 그러나 박상은 '봉효직상'이라는 작품을 통해 비명 속에 죽어간 조광조를 위로하고 있다. 박상은 충주목사 시절 동도지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돌보아 주었다. 그래서 박상을 의리의 인물이라고 한다.

박상의 시는 강개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다. 박상은 강직한 성품 때문에 정적들과의 심한 갈등을 빚어야 했다. 결국 외직을 전전하며 그곳의 경물에 자신의 비분강개를 담아냈다. 이러한 작품들이 그의 수작으로 인정받고 있다. 정사룡은 다른 사람의 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오직 박상의 시는 좋아했다. 그래서 벽 위에 박상의 시구를 써놓고 탄식하며 자기는 따라갈 수 없다고 했다. 황정욱도 박상을 존경하며 그의 시를 인정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박상을 인정한 사람은 정조이다. 권필, 이안눌, 박은, 최립 등의 여러 장점을 겸하고 있어 최고라고 평가했다. 박상은 바쁜 일과 속에서도 반드시 '이소경'을 외고, 읊시 1수를 지은 후에야 잠자리에 들었다. 이런 생활 태도에서 알 수 있듯이 박상의 삶은 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詩業의 세계를 어느 정도 완성했다고 할 수 있다.

호남 시단은 조선 중기에 접어들면서 화려한 꽃을 피웠다. 특히 누정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시를 연마하고 향유하였다. 이렇게 호남의 시를 조선 최

고 수준으로 선도한 대표적 시인이 박상이다. 특히 江南의 詞宗이라고 할 수 있는 임억령과 송순 등을 배출하여 호남의 시가 조선의 시를 주도하고 중심에 자리잡게 하였다. 임억령은 시단을 주도했고, 수준 높은 시와 문을 많이 남겼다. 그리고 송순은 면양정 시단의 주인으로 호남시단을 풍요롭게 한 중심인물 중의 한 사람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박상을 호남시단의 祖宗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1. 자료

權應仁, 『松溪漫錄』
 金壽民, 『箕東樂府』
 金淨, 『冲庵集』
 朴祥, 『訥齋集』
 宋純, 『俛仰集』
 申欽, 『象村稿』
 林億齡, 『石川集』
 許筠, 『國朝詩刪』
 許筠, 『惺所覆瓿藁』
 洪萬宗, 『小華詩評』
 『大東野乘』
 『燕山君日記』
 『中宗實錄』

2. 저서

권순열, 『松川 梁應鼎의 詩文學 研究』, 월인, 2002.
 김성기, 『俛仰宋純詩文學研究』, 國學資料院, 1998.
 박은숙, 『16세기 湖南 漢詩 研究』, 월인, 2004.
 이종건, 『俛仰亭 宋純 研究』, 開門社, 1983.

이종목, 『海東西詩派研究』, 太學社, 1995.

3. 논문

권순열, 「學圃 梁彭孫의 義理精神과 文學世界」, 『古詩歌研究』 第8輯, 韓國古詩歌文學會, 2001.
 권혁명, 「16세기 息影亭 詩壇의 詩世界 研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7.
 김신중, 「〈山居百絶〉을 통해 본 訥齋詩의 性格」, 『訥齋 朴祥의 文學과 義理精神』, 光州直轄市, 1993.
 김은수, 「訥齋 賦文學의 研究」, 『訥齋 朴祥의 文學과 義理精神』, 光州直轄市, 1993.
 김종서, 「16世紀 湖南詩壇과 唐風」,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4.
 박병익, 「16世紀 三唐詩人の 唐詩風 研究」, 목포대 박사학위논문, 2005.
 박준규, 「訥齋 朴祥論」, 『古詩歌研究』 第1輯, 全南古詩歌文學會, 1993.
 박준규, 「訥齋 朴祥의 詩文學論攷」, 『訥齋 朴祥의 文學과 義理精神』, 光州直轄市, 1993.
 이정원, 「訥齋 朴祥의 詩文學 研究」,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2004.
 최한선, 「石川 林億齡 詩文學 研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4.

<투고일 : 2007. 12. 31. 심사일 : 2008. 1. 16. 심사완료일 : 2008. 2. 11.>

〈Abstract〉

A Study on the Nuljae Park, Sang

Kwon, Soon-yoel

Nuljae Park Sang, a poet of the middle period of Joseon Dynasty, made many literary achievements. He is considered as one of the Four Great Writers along with Seong, Hun, Shin, Geong-Han, and Hwang, Jung-Wook since Seo, Geo-Jung. The most innovative events in his life we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was an event named Wooburi Jangsals in Geumsungwan, Naju in 1506. Park Sang arrested Woburi and made him beaten to death. Then this event was justified and further glorified.

Next was the event relating to an appeal for restoration of Shinbi in 1515. Park Sang decided to prepare 'an appeal' relating to Shin at Samindae, Gangchon, Soonchang. It has a symbolic meaning to show they were prepared for death for their fidelity.

Park Sang's poetry is aesthetics of indignation. Because of his upright nature, he had serious conflicts with political opponents. Such poems have been considered as outstanding. His life had an inseparable relations with his poetry and completed even part of his duties to write poetry.

Honam poetry circle bloomed brightly in the middle period of Joseon. Park Sang is a representative poet who raised poetry of

Honam to the best level. In this aspect, it is suggested that Park Sang is a founder of Honam poetical circle.

Key words : Nuljae Park Sang, Wooburi, Samindae, an appeal for restoration of Shinbi, the Four Great Writers, a founder of Honam poetical circle